

도덕적 행위의 추동력으로서 수치심* - 순자철학을 중심으로 -

정 영 수*

【주제분류】 중국철학, 감정론

【주 요 어】 순자, 수치심, 세욕(勢辱), 염치(廉恥), 의욕(義辱)

【요 약 문】

본 연구는 순자철학을 중심으로 수치심의 도덕적 기능에 대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순자철학에서 수치심은 수동적인 감정이자 능동적인 감정이다. 먼저, 수동적 수치심은 인간의 기본감정 중 싫어함과 관련되어 있으며 세욕(勢辱)이라 한다. 순자는 수동적 수치심인 세욕(勢辱)을 이용해 과도한 욕구 충족에 의해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막고자 한다. 다음으로, 순자는 인간이 능동적 수치심을 통해 인간의 타고난 기본 욕구를 사회적 맥락에 맞게 조율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예와 의를 배움으로써 능동적 수치심인 염치(廉恥)와 의욕(義辱)을 가지게 된다. 염치는 욕구 충족을 사회적 맥락에 맞게 조절한다. 의욕은 인간에게 예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로 작용한다. 순자철학에서 수치심은 인간이 배움의 길과 도덕 실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한다. 즉, 수치심은 자기배려의 감정이자 자기 반성적인 감정이다.

1. 서론

이 글은 순자철학을 중심으로 수치심의 도덕적 기능에 대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순자철학에서 수치심은 인간이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타고난 성향으로부터 벗어나 도덕 수양과 도덕 실천의 길로 나아가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3278)

** 전남대학교 철학과 BK21PLUS 사업단 학술연구교수

게 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한다. 즉, 인간은 수치심에 의해 타고난 본성으로부터 벗어나 도덕적 존재로 변모하게 된다. 수치심은 순자철학의 이성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소홀히 다뤄져 왔다.¹⁾ 본 연구는 『순자』에서 수치심과 관련된 개념들인 ‘욕(辱)’, ‘치(恥)’, ‘수(羞)’ 그리고 ‘세욕(勢辱)’과 ‘의욕(義辱)’, ‘인치(忍恥)’와 ‘염치(廉恥)’ 등을 이성론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수치심이 도덕 수양과 도덕적 행위의 추동력임을 밝히고자 한다.

선진유학은 서구 철학과 심리학이 수치심을 타인의 비방으로부터 발생하는 저등하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정의²⁾하는 것과는 달리 도덕적 행위의 추

- 1) 동양철학에서 수치심에 대한 연구로는 대략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첫째, 선진유학 전반에 걸친 문헌 분석을 통한 수치심을 연구로는 쉐로이 쉐(Kwong-Loi Shun, *Mencius and Early Chinese Thought*(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pp. 58-60), 석봉래(Bongrae Seok, "Moral Psychology of Shame in Early Confucian Philosophy", *Frontiers of Philosophy in China*, Vol.10(Springer Singapore, 2015), pp.21-57), 이찬(이찬, 「수치심과 ‘용기’-유가의 전통에서 인간다운 삶의 의미에 관하여」, 『철학연구』 제51집(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5), 1-29쪽) 등의 연구가 있다. 둘째, 맹자의 ‘수오지심’과 ‘의(義)’를 중심으로 수치심을 논하는 연구로는 정용환(정용환, 「맹자의 도덕 감정론에서 부끄러움의 의미」, 『철학논총』 제66집(새한철학회, 2011), 135-164쪽), 노든(Bryan W. Van Norden, "The Emotion on Shame and the Virtue of Righteousness in Mencius", *Dao: A Journal of Comparative Philosophy Vol 2*(Springer, 2002), pp.45-77) 등이 있다. 셋째, 순자의 ‘영욕(榮辱)’ 개념을 중심으로 수치심을 규명하는 연구로는 안토니오 쿠아(Antonio S. Cua), 렌유준(任玉軍, 「荀子榮辱觀概要」, 『文史博覽』, 2008, 27-28쪽), 마용칭(馬永慶, 「荀子的榮辱思想釋義」, 『哲學研究』, 2006, 50-54쪽) 등이 있다.
- 2) 수치심을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말한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데카르트(Descartes), 스피노자(Spinoza), 그리고 마사 너스바움(Martha C. Nussbaum) 등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치심이 나쁜 행위로 인해 일어난다는 점에서 훌륭한 사람이 가질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치심을 정의감의 결핍을 메울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이해한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지음,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창우·김재홍·강상진 옮김(이재이북스, 2007), 157쪽 참조) 데카르트는 수치심을 타인들에게 비방을 당할 때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 될 때 발생하는 감정으로 규정한다. 이와 유사하게 스피노자는 수치심이 타인이 자신을 비난 한다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불쾌의 감정이라 정의한다.(조정옥, 「셸러의 부끄러움 이론을 통해 본 한국인의 수줍음」, 『철학과 현상학연구』 제9집(한국현상학회, 1996), 291쪽 참조) 현대의 법철학자이자 감정연구자인 너스바움은 수치심을 법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루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

동력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감정으로 정의한다. 즉, 선진유학은 수치심을 인간의 도덕적 자아의 형성과 수양 그리고 도덕적 행위의 실천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감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자는 수치심을 외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자 내면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규정한다. 부정적 감정으로서 수치심은 자신의 초라한 옷, 음식 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이 격하되고 있다는 느낌으로부터 발생한다.³⁾ 긍정적인 감정으로서 수치심은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 이상에 맞지 않을 때 내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정으로 인간을 도덕 수양의 길로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⁴⁾ 하지만 공자는 긍정적인 감정으로서 수치심이 어떻게 인간의 도덕 수양과 도덕 실천을 가능케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맹자는 공자의 수치심에 대한 관점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인간 본성의 층위에서 논의한다. 맹자는 수치심을 인간의 선한 본성 중 하나로서 의(義)의 단초로 말한다. 맹자 철학에서 수치심은 사적인 이익 추구를 지양하고 공적인 의로움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감정으로 강조되고 있다.⁵⁾ 수치심을 선천적 도덕 감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맹자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현대의 수치심에 대한 연구들은 신체적 수치심과 도덕적 수치심 그리고 수동적 수치심과 능동적 수치심 등을 포함한 모든 수치심을 ‘인간 존재의 근원적 자기의식 즉 인격적 통합성(integrity)’⁶⁾

는 완전한 존재가 되려는 열망을 담고 있는 나르시시적인 감정으로 규정한다. 너스바움은 수치심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나르시시적인 감정으로 규범적 의미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한다. 너스바움은 수치심이 인간이 선한 행동을 행하도록 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공적 영역의 규범으로서 신뢰할 수 없는 감정이라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수치심의 비합리적이고 나르시시적인 특성은 도덕적 감정인 연민의 방해요인으로 간주한다.(마사 너스바움 지음, 『혐오와 수치심』, 조계연 옮김(민음사, 2015), 38-39쪽 참조)

- 3) 공자는 “도에 뜻을 두면서 조악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죽히 더붙어 의론할 것이 없다[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고 주장한다(『논어』 「리인」).
- 4) 공자는 “인도하기를 덕으로 하고 가지런히 하기를 예로써 한다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수치심을 느끼고 또한 선에 이르게 된다[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라고 말한다(『논어』 「위정」).
- 5) 정용환, 「맹자의 도덕 감정론에서 부끄러움의 의미」, 135-164쪽 참조.

에서 발생하는 감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수치심은 자기의식이 형성된 후에 발생하는 감정이다.⁷⁾ 뿐만 아니라 수치심은 자신이 타인에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감정으로 설명되고 있다.⁸⁾ 즉, 현대의 감정연구자들은 수치심을 타자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감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⁹⁾ 이런 점에서 수치심을 선천적 도덕 감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맹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자와 맹자의 관점 수용하여 수치심을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감정으로 그리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감정으로 말하고 있으면서도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감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순자의 수치심을 주제로 삼고자 한다.

순자철학에서 수치심은 인간의 후천적 도덕성 계발과 수양 그리고 도덕적 행위의 실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순자 철학에서 모든 인간은 수치를 싫어하고 영예를 좋아하는 감정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간은 수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감정적 성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인간이 이익을 좋아하는 감정적 성향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데로 이익을 추구해 가면 타인들과 다투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치심은 타인에 의해 비방이나 폄하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감정이다. 인간은 수동적 수치심에 의해 지나친 이익 추구나 도덕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순자는 수동적 수치심을 이용하여 인간의 비도덕적 행위를 제어하는 사회적 규제의 기제로 이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동적 수치심은 인간의 행위를 제지할

6) 임흥빈, 『수치심과 죄책감』(바다출판사, 2013), 248쪽 참조.

7) 딜런 에번스, 『감정』, 임건태 옮김(이소출판사, 2002), 41-44쪽 참조.

8) 사르트르, 『존재와 무』, 정소성 옮김(동서문화사, 2009), 385-387, 487-493쪽 참조. 사르트르는 수치심을 타자의 시선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느낌이자 자아 형성을 위한 긍정적 형태의 감정으로 규정한다.

9) Jesse J. Prinz, *The Emotional Construction of Morals*(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76-80.

뿐만 적극적으로 도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순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도덕 실천 행위를 가능케 하는 추동력으로서 능동적 수치심을 말한다. 인간은 예(禮)와 의(義)를 배움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넘어 타인의 욕구에 대해 배려하고, 공동체의 번영과 화합을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이와 함께 인간은 능동적 수치심을 가지게 된다. 능동적 수치심은 인간을 도덕 수양과 도덕적 행위 실천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한다. 인간은 능동적 수치심에 의해 자발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실행하는 존재로 변모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순자철학에서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수치심을 '오욕(惡辱)과 '세욕(勢辱)'을 중심으로 살피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수치심을 '엄치(廉恥)'와 '의욕(義辱)'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2. 수동적 수치심

1) 성(性)과 오욕(惡辱)

중국철학사에서 수치심을 인간의 성(性)으로 규정한 최초의 철학자는 맹자이다. 그는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도덕 감정인 수오지심(羞惡之心)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감정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덕 감정인 수오지심은 사회의 도덕적 마땅함인 의(義)를 실천하는 단초가 된다. 현대의 감정연구에 의하면 도덕적 수치심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타고나는 기본감정으로부터 파생된 복합감정으로서 인지·평가·해석 등이 개입된 감정일 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 형성된 내면화된 타자의 시선과 자기의식이 형성될 때 발생하는 감정이다.¹⁰⁾ 즉, 도덕적 수치심은 인간의 후천적 경험으로부터 발

10) Philip Johnson-Laird, *How We Reason*(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78-81 참조. 존슨-래어드는 기초감정을 인간의 감각 시상(sensory thalamus)에서 편도체(amygdala)를 거쳐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으로 복합감정을 감각 시상에서

생하는 감정이다. 맹자의 수오지심은 도덕적 수치심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인성론적 설명을 시도한 것이지만 선천적인 감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맹자와 다르게 순자는 수치심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초감정이 아닌 후천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감정으로 이해한다. 그는 「천론」 편에서 인간의 선천적 기초감정으로 ‘천정(天情)’ 즉 ‘호오희노애락(好惡喜怒哀樂)’을 말하고 있다. 순자의 기초감정 목록에는 수치심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순자뿐만 아니라 『맹자』를 제외한 유학의 다른 문헌들에서도 수치심은 인간의 선천적 기초감정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예기』 「예운」 편에서는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을 그리고 『중용』에서는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인간의 기초감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순자』에서 수치심을 표현하는 용어로는 ‘욕(辱)’, ‘치(恥)’, ‘수(羞)’ 등이 있다. 순자는 이 중에서 ‘욕(辱)’을 선천적 기초감정인 ‘오(惡)’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간의 재(材)와 성(性) 그리고 지(知)와 능(能)은 군자와 소인이 동일하다. 영예를 좋아하고 치욕을 싫어하고,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함은 바로 군자나 소인이 똑같다.¹¹⁾

순자는 인간의 기초감정 중 ‘호(好)’와 ‘오(惡)’를 ‘영(榮)’과 ‘욕(辱)’에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호와 오는 기초 감정 중에서도 보다 원형적인 감정이다. 수치심인 ‘욕’은 ‘오’의 감정과 영예심인 ‘영’은 ‘호’의 감정과 관련된다. 즉, ‘영’이 ‘호’와 관련된 긍정적인 것이라면, ‘욕’은 ‘오’와 관계된 부정적인 감정이다. 순자는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수치심의 발생 원인을 인간의 성(性)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뇌피질(cortex)을 지나 편도체를 거쳐 드러나는 인지, 평가, 해석 등이 개입된 감정으로 구분한다.

11) 『순자』 「영욕」, “材性知能, 君子小人一也. 好榮惡辱, 好利惡害, 是君子小人之所同也.”

송자가 말했다. “모욕을 당해도 욕되지 않음을 밝히면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두 모욕을 당하는 것을 욕되다고 여기기 때문에 싸운다. 모욕을 당해도 욕되지 않음을 알면 곧 싸우지 않는다.” 이에 대해 순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또한 사람의 감정이 모욕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보는가?” 송자가 대답했다. “싫어하지만 욕되다고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순자가) 말했다. 그와 같이 한다면 반드시 싸우지 않도록 만들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싸울 때는 반드시 그가 싫어하는 것을 이유를 삼지, 그가 욕을 보았다는 이유로 싸우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배우나 난쟁이들이나 광대들이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해도 싸우지 않는 것이 어찌 바로 모욕을 당한 것이 욕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겠는가!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는 것은 싫어하지 않기 때문이다.¹²⁾

송자와 순자 모두 공통적으로 모욕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다툼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송자는 모욕을 당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다툼을 없애기 위해 그것을 모욕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을 주장한다. 이와 달리 순자는 인간이 모욕을 싫어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라 주장한다. 순자는 수치심을 인간의 기본감정 중 싫어함과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인간은 부정적 수치심인 모욕을 싫어하는 경향성을 타고난다. 수치심은 기본감정 중 싫어함이라는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해서 형성된 감정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수치를 싫어하는가? 순자철학에서 싫어함의 감정은 자신에게 ‘손해됨[害]’과 관련되어 있다.¹³⁾ ‘손해됨’이란 자신의 이미지의 실추를 의미한다. 즉, 인간이 부정적 수치심을 싫어하는 것은 원초적인 자기의식의 훼손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순자철학에서 수치심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으로

12) 『순자』 「정론」. “子宋子曰, 明見侮之不辱, 使人不鬪. 人皆以見侮爲辱, 故鬪也. 知見侮之爲不辱, 則不鬪矣. 應之曰, 然則亦以人之情爲不惡侮乎! 曰, 惡而不辱也. 曰, 若是則必不得所求焉. 凡人之鬪也, 必以其惡之爲說, 非以其辱之爲故也. 今俳優侏儒狎徒冒侮而不鬪者, 是豈鉅知見侮之爲不辱哉! 然而不鬪者, 不惡故也.”

13) 순자는 「영욕」 편에서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것, 이것은 군자와 소인이 동일하다[好利惡害, 是君子小人之所同也]”라고 하여 인간이 손해됨을 싫어함을 말하고 있다.

서 기초감정으로부터 파생된 감정이다.¹⁴⁾

다음으로, 순자는 수치심을 인간이 후천적인 배움을 통해 쌓게 되는 덕과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영예나 치욕이 오는 것은 반드시 그 덕으로 말미암는다. [...] 따라서 말은 화를 부를 수 있고 행동은 욕됨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군자는 그의 처신에 대해 신중하다.¹⁵⁾

순자철학에서 수치심은 인간이 가진 덕(德)과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이다. 한 사람이 가진 덕의 상태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덕의 후덕함과 빈약함의 상태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덕 있는 사람이란 후천적 배움을 통해 도덕적 자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달리 덕이 없는 사람은 타고난 본성을 따라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덕이 있는 사람은 후덕한 행위를 하게 되어 영예를 받게 되지만, 덕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과 다툼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덕을 쌓느냐 쌓지 않느냐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순자철학에서 수치심은 맹자의 주장처럼 선천적으로 부여되는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덕과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후천적 경험의 산물이다. 뿐만 아니라 수치심은 맹자의 수오지심(羞惡之心)처럼 의(義)의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함과 관련된 부정적 감정으로서 타인과의 다툼을 초래하는 단초로 작용한다.

2) 법(法)과 세욕(勢辱)

인간이 수치심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타고난 성(性)과 정(情)에

14) 딜런 에번스, 『감정』, 41-44쪽 참조.

15) 『순자』 「권학」. “榮辱之來, 必象其德. [...] 故言有召禍也, 行有招辱也, 君子慎其所立乎.”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타고난 성과 정에 따라 행위 할 때 자기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위해 행위 하게 된다. 타고난 성정에 충실한 인간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을 해치는 행위도 서슴없이 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성정만을 따라 행위 하는 인간은 타인과 다투게 되어 위태롭고 치욕을 당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치욕을 싫어하면서도 치욕을 당할 행동을 하는가?

성정(性情) 따라 멋대로 행동하고 제대로 학문을 하지 않으면 소인이 된다. 군자는 언제나 안락하고 영예롭지만 소인이 되면 언제나 위태롭고 치욕을 보게 된다. 모든 사람은 안락하고 영예롭기를 바라며 위태롭고 욕을 보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오직 군자만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얻게 되고, 소인들은 매일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불러들이게 된다.¹⁶⁾

그러니 누구든 요임금 우임금이 될 수도 있고, 걸왕이나 도척이 될 수도 있다. [...] 이것은 형세와 마음가짐과 행동과 배움과 버릇이 쌓여 그렇게 되는 것이다. [...] 요임금, 우임금처럼 되면 언제나 안락하고 영화롭지만, 걸왕이나 도척처럼 되면 언제나 위태롭고 욕을 보게 된다. [...] 그런데도 사람들은 뒤의 것이 되기에 힘쓰는 것이 보통이고, 앞의 것이 되기 위해 힘쓰는 이들이 적은 것은 어째서인가? 비루하기 때문이다.¹⁷⁾

군자는 항상 영예롭고 소인은 치욕을 보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타고난 성정(性情)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배움을 하지 않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배움을 통해 타고난 성정(性情)의 발현을 조율하지 못할 때 인간은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하게 된다. 배움의 과정에 의해 인간은 영예로울 수도 치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16) 『순자』 「유효」. “縱性情而不足問學，則爲小人矣。爲君子則常安榮矣，爲小人則常危辱矣。凡人莫不欲安榮而惡危辱，故唯君子爲能得其所好，小人則日徼其所惡。”

17) 『순자』 「영욕」. “可以爲堯禹，可以爲桀跖。[...] 在執注錯習俗之所積耳。[...] 爲堯禹則常安榮，爲桀跖則常危辱。[...] 然而人力爲此而寡爲彼，何也？曰，陋也。”

인간은 타고난 자질이 똑같지만 배움의 과정을 거칠 때 성인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악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순자는 배움에 힘쓰지 않는 인간을 ‘비루한 인간’으로 규정한다. 비루한 인간은 타고난 성향에 따라 이익을 추구를 위해 수치심도 감내하는 인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은 비루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순자는 이를 위해 인간의 타고난 기본성향을 이용하여 비루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한다. 즉,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기본성향 중 하나인 ‘영예를 좋아하고 치욕을 싫어하는 성향’과 상벌(賞罰) 체계를 이용하여 인간의 비루한 행동을 막고자 한다. 순자는 인간의 수동적 수치심을 이용해 비도덕적 행위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어하고자 한다. 그는 도덕규범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치욕스런 형벌을 줌으로써 사회적 규제의 기제로 사용하고자 한다.¹⁸⁾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머리를 잡히고 손찌검을 당하며, 매를 맞고 다리를 잘리는 형벌을 받고, 목이 잘리거나 사지가 찢겨지는 형벌을 받기도 하며, 쇠사슬에 묶이고 재갈을 물리기도 한다면, 이 사람의 치욕은 밖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권세에 의한 수치심이라 한다.¹⁹⁾

순자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자 한다. 순자는 이처럼 형벌을 받음으로써 타인들에게 비취지는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됨으로써 느끼는 수치심을 ‘권세에 의한 수치심’이라 정의한다. 권세에 의한 수치심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수동적인 것이며, 부정적인 감정이다. 순자는 이러한 권세에 의한 수치심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게 하고자 한다.

18) 순자는 「수신」편에서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이 법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게 되고, 법이 있으나 그 의미에 뜻을 두지 않으면 불안하게 된다.[人無法則俱偃然, 有法而無志其義則渠渠然.]”

19) 『순자』 「정론」. “詈侮摔搏, 捶笞臠腳, 斬斷枯磔, 藉靡舌絕, 是辱之由外至者也, 夫是之謂執辱.”

정치가 안정되고 풍속이 통일되었지만 풍속을 배반하고 임금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백성들은 모두가 그 자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해악을 끼치는 자라 여겨 역귀를 쫓아내듯 할 것이다. 그렇게 된 후에 형벌이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큰 형벌이 가해지는 까닭이다. 치욕이 이보다 더 클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이익이라 여기겠는가? 곧 큰 형벌이 가해지는데 그 자신이 진실로 미치고 미혹되었거나 어리석고 못나지 않았다면 그 누가 이것을 보고도 행실을 고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 뒤에야 백성들은 모두가 임금의 법을 따를 줄 알게 되고, 임금의 뜻을 본받아 안락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백성들은 착하게 교화되고 몸을 닦아 행실을 올바르게 하여 예의를 따르고 도덕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²⁰⁾

순자는 상벌을 통해 인간이 법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유도하고자 한다. 인간은 도덕규범과 법을 어길 경우 형벌에 의해 치욕스런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인간은 수동적 수치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도덕규범과 법을 준수하게 된다. 하지만 수동적 수치심에 의한 인간의 행위는 자발적인 도덕 행위가 아닌 마지못해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이 상을 받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라면 손해를 입으면 그만둘 것이다. 그러므로 포상으로 형벌이나 또는 권세와 속임수로는 사람들의 힘을 다하게 하고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도록 할 수가 없다. [...] 그러므로 포상이나 형벌 또는 권세와 속임수를 사용하는 방법이란 품삯으로 일꾼을 사고 장사꾼이 물건을 파는 방법과 같다. 그것으로는 민중들을 통합시켜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기고 입에 담지도 않았던 것이다.²¹⁾

20) 『순자』 「의병」. “政令以定，風俗以一，有離俗不順其上，則百姓莫不敦惡，莫不毒藥，若祓不祥，然後刑於是起矣。是大刑之所加也。辱孰大焉？將以爲利邪？則大刑加焉。身苟不狂惑戇陋，誰睹是而不改也哉？然後百姓曉然皆知循上之法，像上之志而安樂之，於是能有能化善脩身正行積禮義尊道德。”

21) 『순자』 「의병」. “凡人之動也，爲賞慶爲之，則見害傷焉止矣。故賞慶刑罰執詐不足以盡人之力，致人之死。[...] 故賞慶刑罰執詐之爲道者，傭徒粥賣之道也，不足以合大衆美國家，故古之人羞而不道也。”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그대로의 성향을 일차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법을 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상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할 때 인간은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권세에 의한 수치심'은 인간을 교화시키는데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즉, 형벌에 의해 수치를 당하게 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법을 준수하는 인간은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 수동적 수치심은 인간의 자발적 도덕 행위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3. 능동적 수치심

1) 예(禮)와 염치(廉恥)

수동적 수치심은 상벌(賞罰)과 원초적 감정인 '오(惡)'를 이용하여 인간이 불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 있지만 자발적인 도덕적 행위를 실행하도록 유도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타고난 기본성향을 극복하고 자발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되는가? 순자는 인간이 예를 배움으로써 타고난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예의 기능이란 바로 인간의 타고난 기본성향을 기르는 것이다. 순자는 「예론」편에서 예가 나오게 된 유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는 어디서 생겨났는가?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이 있는데,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곧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추구함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다면 곧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투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궁해진다. 옛 임금들께서는 그 어지러움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의를 제정해 이들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게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욕망은 반드시 물건에 궁해지지 않도록 하고, 물건은 반드시 욕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예가 생겨난 이유이다.²²⁾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며, 욕망을 충족시키기를 바란다. 인간이 가진 욕망은 무한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 욕망을 충족시키려는데 일정한 절도가 있지 않으면 인간은 다툼 수밖에 없다. 결국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는 다툼이라는 혼란만을 초래하게 된다. 성왕이 예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조절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이 예를 통해 욕망을 추구해 갈 때 각각의 사회적 상황에 맞게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수동적 수치심은 인간의 내면에 예에 대한 의식이 형성될 때 능동적 수치심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인간의 자의식이 자신의 생리적 욕구 충족만을 위해 기능하는 저차원의 자의식에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욕구 실현을 조율하는 자의식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치심도 형벌과 타인의 멸시적 시선에 의해 발생하여 과도한 욕구 충족을 제지하는 감정에서 자기 자신의 행동이 인간 사회의 보편적 행위 양식인 예(禮)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감정이 된다. 즉, 수치심은 수동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감정에서 인간이 능동적으로 예를 행하도록 추동하는 감정으로 변화하게 된다.²²⁾ 인간은 예를 체득함으로써 예에 맞지 않은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예의에 맞지 않은 행동에 대한 수치심이 바로

22) 『순자』 「예론」. “禮起於何也? 曰, 人生而有欲, 欲而不得, 則不能無求, 求而無度量分界, 則不能不爭. 爭則亂, 亂則窮, 先王惡其亂也, 故制禮義以分之, 以養人之欲, 給人之求, 使欲必不窮乎物, 物必不屈於欲, 兩者相持而長, 是禮之所起也.”

23) 순자는 「예론」 편에서 상례(喪禮)를 예에 맞지 않게 행하는 것을 군자는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즉, 군자에게 있어서 수치심은 예를 행하도록 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상례는 의식의 변화에 따라 수식이 가해지고 의식을 행할 때마다 멀어지며, 오래 되면 평상시로 되돌아오게 된다. [...] 하루아침에 그의 임금이나 부모를 여의고서 그 분을 장례지내는 장본인이 슬퍼하지도 않고 공경스럽지도 않다면 곧 새나 짐승만도 못할 것이다. 군자는 이것을 수치로 생각한다.[喪禮之凡, 變而飾, 動而遠, 久而平, [...] 一朝而喪其嚴親, 而所以送葬之者不哀不敬, 則嫌於禽獸矣, 君子恥之.]” 이와 유사하게 쉐러는 수치심을 충동과 정신의 관계 그리고 개별자와 보편자의 관계라는 두 측면에서 다룬다. 쉐러에게 있어서 수치심은 저차원의 충동과 고차원의 가치를 분별하는 의식적 기능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정이다. 인간은 수치심에 의해 인간 종의 번식에 기여하고자 하는 보편적이고 저차원의 충동을 제어하고 개별자의 높은 차원의 정신적 기능을 작용시켜 자신의 자아를 형성한다(조정옥, 『감정과 에로스의 철학』(철학과현실사, 1999), 111-123쪽 참조).

염치(廉恥)이다. 염치란 능동적 수치심으로서 인간이 예를 습득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회남자』 「태족훈」편에는 염치와 예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백성에게 염치가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는데, 예의를 닦지 않으면 염치는 생기지 않는다. 백성이 예의를 지니고 있지 않으면 법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데, 선(善)을 존중하고 추함[醜]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예의로 돌아가지 않는다.²⁴⁾

인간 사회가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은 염치이다. 왜냐하면 염치가 있어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도덕적 행동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염치를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예의(禮義)이다. 인간은 예의를 배움으로써 능동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도덕적 행위를 하는 염치가 형성된다.²⁵⁾ 인간은 수동적 수치심에 의해 법을 준수하는 인간에서 예의를 배움으로써 능동적 수치심인 염치를 형성하게 된다. 인간은 능동적 수치심인 염치를 통해 타고난 기본성향을 사회적 맥락에 맞게 발현하게 된다.

지금 사람들의 입과 배만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예의를 알고 어떻게 사양을 알며 어떻게 염치와 도리를 알겠는가? 오직 먹기나 하여 불룩하게 배부르면 그 만일 것이다. 사람들에게 스승도 없고 법도도 없다면, 곧 그의 마음도 바로 그의 입과 배처럼 될 것이다.²⁶⁾

24) 『회남자』 「태족훈」. “民無廉恥，不可治也，非修禮義，廉恥不立，民不知禮義，法弗能正也，非崇善廢醜，不向禮義，無法不可以爲治也，不知禮義，不可以行法。”

25) 『논어』 「위정」에서도 “정령(정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부끄러움이 있고 또 바르게 된다[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道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라고 하여 수치심을 법령에 대한 자율적 준수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26) 『순자』 「영욕」. “今是人之口腹，安知禮義？安知辭讓？安知廉恥隅積？亦啍啍而嚙，鄉鄉而飽已矣，人無師無法，則其心正其口腹也。”

인간은 타고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타고난 욕구에 충실한 인간이란 바로 입과 배만을 채우는데 급급한 인간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타인과의 다툼을 통해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다. 염치란 인간이 예의를 배움으로써 타고난 욕구를 사회적 맥락에 맞게 조율하고 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이다. 인간은 반드시 예의를 배움으로써 타고난 기본 욕구를 사회에 맞게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인간의 내면에는 예의에 대한 자의식이 형성되고, 능동적 수치심인 염치가 생겨나게 된다.

성실하고 순하다면 선한 젊은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에 학문을 좋아하고 겸양에 힘쓰는 더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군자라고 할 수 있다. 게을러 일을 싫어하고 염치가 없고 마시고 먹는 것만을 즐긴다면 나쁜 젊은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제멋대로 굴고 난폭하며 순하지 못하고 음험하고 공손하지 못하다면 선하지 못한 자라 말할 수 있다. 비록 형벌이나 죽임을 당하는 것에 빠지는 것도 가능하다.²⁷⁾

순자는 인간을 착한 젊은이와 나쁜 젊은이 그리고 군자와 선하지 못한 자로 구분한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학문을 통해 예의를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이다. 인간이 학문을 통해 예를 배움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여 타인에게 양보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인간이 태어난 상태 그대로 남아 있게 될 때 자신의 기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행위 하게 된다.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인간은 바로 염치가 없는 인간이다. 인간이 염치가 없이 행동하게 될 때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 심할 경우 형벌을 받거나 사형을 당하게 된다. 염치는 인간의 내면에 예에 대한 자의식이 형성될 때 예에 맞지 않은 행동에 대해 발생하는 능동적 수치심이다. 염치는 인간이 사회적 양식에 따라 행위 할 수 있게 하는

27) 『순자』 「수신」. “端慤順弟，則可謂善少者矣，加好學遜敏焉，則有鈞無上，可以爲君子者矣。偷儒憚事，無廉恥而嗜乎飲食，則可謂惡少者矣，加惕憚而不順，險賊而不弟焉，則可謂不詳少者矣，雖陷刑戮可也。”

추동력으로 작용한다. 즉, 염치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이 예에 어긋나지 않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한다.

2) 의(義)와 의욕(義辱)

개인적 측면에서 타고난 기본성향의 욕구들을 조절하는 데 작용하던 염치는 의에 대한 배움을 통해 공동체의 화합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의에 의한 수치심’으로 변화하게 된다.²⁸⁾ ‘의에 의한 수치심’이란 무엇인가?

문란한 짓을 함부로 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짓을 하며 분수를 넘어 사리를 어지럽히고 교만하고 포악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라면 이런 사람의 치욕은 안으로부터 우리나라오게 되는데, 바로 이런 짓을 의에 의한 수치심[義辱]이라 한다.²⁹⁾

‘의에 의한 수치심’이 발생하는 경우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인간이 타고난 성정(性情)을 따라 문란하게 행동하고 추한 행위를 할 때이다. 둘째는 인간이 따라야 할 이치(禮)를 따르지 않고 빈부귀천·남녀노소 등의 ‘분(分)’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때이다. 셋째는 인간이 자신만을 위한 사적 이익을 추구할 때이다. 그렇다면 왜 ‘의에 의한 수치심’은 이 세 가지 경우에 내면에서 발생하게 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순자 철학에서 ‘의(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해결될 것이다.

순자는 「왕제」편에서 흠과 돌, 초목,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만이

28) 의를 수치심과 연관하여 설명하는 것은 『맹자』나 『여씨춘추』 등에 보인다. 맹자는 수오지심을 의의 단초로 말하고 있으며, 『여씨춘추』에서는 모욕과 불의를 관련시켜 말하고 있다. 『여씨춘추』 「중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른바 각박한 삶[迫生]이라는 것은 여섯 가지 욕구가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한 것으로 모두 매우 악한 것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니, 굴복이 그러하고, 모욕이 그러하다. 모욕은 불의(不義)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그러므로 불의는 그대로 각박한 삶인 것이다.[所謂迫生者, 六欲莫得其宜也, 皆獲其所甚惡者, 服是也, 辱是也. 辱莫大於不義, 故不義, 迫生也.]”

29) 『순자』 「정론」, 342-343쪽. “流淫汙慢, 犯分亂理, 驕暴貪利, 是辱之由中出者也, 夫是之謂義辱.”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 의(義)를 말한다. 의는 사회가 화합과 변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원리이다. 순자에 의하면, 인간이 육체적인 역량에 있어서 동물들에 뒤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군림할 수 있는 이유는 ‘군(群)’을 이루고 살기 때문이다. ‘군’은 동물들의 무리와는 다른 것으로 ‘분’을 통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분’이란 사회의 구별, 즉 빈부귀천, 남녀노소 등의 차이를 말한다.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분’에 맞게 실현하는 원리가 바로 의이다.³⁰⁾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群]는 바로 의에 의해서 화합하게 됨으로써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群]가 다투지 않고 화합[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의이다. 또한 의는 이치[理]를 따르는 것이자 예(禮)를 따르는 것이다.³¹⁾ 순자철학에서 예(禮)는 “몸을 바르게 하는 것”³²⁾, “절제하는 준칙”³³⁾, “인도의 극치”³⁴⁾로 정의되고 있다. 즉, 의는 예(禮)를 통해 인간의 타고난 기본욕구를 조율함으로써 이익의 추구를 사회적 분(빈부귀천·남녀노소)에 맞게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³⁵⁾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의에 의한 수치심’은 배움을 통해 의를 내면화하여 의에 대한 자의식이 형성되었을 때 발생하는 감정이다.³⁶⁾ ‘의욕(義辱)’이란 욕구의 실현을 사회적 맥락에 맞게 조율하는 감정이다. 이 수치심은 자신의 행위가 의롭지 못하다는 자각으로부터 발생한다. 즉, ‘의욕’은 사

30) 「강국」편에서는 “무릇 의로움이란 안으로는 사람들을 조절하고, 밖으로는 만물을 조절하는 것이다[夫義者, 內節於人而外節於萬物者也]”라고 하였다.

31) 「의병」편에서는 “의라는 것은 이치[理]를 따르는 것[義者循理]”이라 하고, 또 “의라는 것은 예를 따르는 것[義者循禮]”이라 하고 있다. 「의병」편에 의하면 의란 ‘이치’ 곧 ‘예’를 따르는 것이다.

32) 「수신」편에서는 “예는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禮者, 所以正身也]”라고 하였다.

33) 「치사」편에서는 “예는 절제하는 준칙이다[禮者, 節之準也]”라고 하였다.

34) 「예론」편에서는 “예는 인도의 극치이다[禮者, 人道之極也]”라고 하였다.

35) 「대략」편에서는 “존귀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 주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해 주고, 현명한 사람을 현명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고, 노인인 노인으로 잘 모시고, 어른을 어른으로 잘 모시는 것이 의의 원리이다[貴貴尊尊賢賢老老長長, 義之倫也]”라고 하였다.

36) 켄로이순, 이장희 역, 『맨얼굴의 맹자』(동과서, 2017), 123-132쪽 참조.

회적 분(分)에 맞지 않은 욕구 충족 행위에 대한 자기 반성적 자각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정이다. 결국 순자철학에서 말하는 ‘의욕’이란 공동체의 화합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감정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내면적 반성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자기반성적 감정이다.³⁷⁾ 뿐만 아니라 ‘의욕’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기 평가를 통해 발생하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능동적이고 도덕적인 감정이다. 순자는 인간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수치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군자는 자신을 수양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남들이 더럽게 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는다. 신의가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남들이 믿어 주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는다. 능력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등용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명예에 유혹당하지 않고 남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를 따라 행동하며 단정히 자기를 올바르게 유지하기만 하지, 사물에 의해 기울어지는 일이 없다. 이런 사람을 두고 진실한 군자라 하는 것이다. ³⁸⁾

순자는 군자의 세 가지 ‘치(恥)’와 ‘불치(不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첫째, 군자는 학문이나 덕을 닦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신을 했는가 하지 못했는가는 자기 자신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타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수치스러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군자는 배움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 자신의 나약한 의지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다.³⁹⁾

37) Bongrae Seok, “Moral Psychology of Shame in Early Confucian Philosophy”, pp.37-38 참조.

38) 『순자』 「비십이자」. “君子恥不修, 不恥見汙, 恥不信, 不恥不見信, 恥不能, 不恥不見用. 是以不誘於譽, 不恐於誹, 率道而行, 端然正己, 不爲物傾側, 夫是之謂誠君子.”

39) 『순자』 「유좌」 편에서는 “나는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있다. [...] 어려서 부지런히

둘째, 군자는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이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은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믿지 않고의 문제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셋째, 군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부끄러워하지만 다른 사람이 등용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군자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자기 자신의 자율적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이므로 무능함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한다. 하지만 등용되고 되지 않고의 문제는 타인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만한 것이 못된다.

이러한 군자의 수치심은 배움과 말과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이 세 가지의 성취 여부는 자기의 의지에 달려 있다. 군자는 자기 스스로 자율적 선택에 의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자기반성적 사실로부터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통해 내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치심이다. 뿐만 아니라 수치심은 인간이 배움과 도덕적 실천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감정이다.⁴⁰⁾ 수치심은 자신의 손상된 이미지가 타인에게 훼손된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도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감정이다. 즉, 수치심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자기반성적 감정이다. 군자는 이러한 자기반성을 통해 도의 실천과 배움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인간은 능동적 수치심에 의해

배우지 않고 늙어서는 남을 가르칠 것이 없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한다[吾有恥也. [...] 幼不能彊學, 老無以教之, 吾恥之.]”라고 하여 수치심을 배움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다. 수치심은 인간이 배움의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 40) 안토니오 쿠아는 순자철학에서 만약 행위자가 개인적 이익을 넘어 의의 우선성에 대해 말한다면, 그는 부끄러운 것보다는 영예로운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위자와 공동체에 이익을 약속하기 때문이다.(Antonio S. Cua, *Human nature, ritual, and history: studies in Xunzi and Chinese philosophy*, pp.226-228 참조) 이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수치심이 의로움을 실천하게 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인간이 자신의 행위와 말이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도덕감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공동체 구성원과 화합하고 번영을 위해 도모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도덕적 수치심을 견뎌내고 자신의 이익과 욕구만을 추구해 갈 경우 인간은 ‘비루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다. 『순자』 「대략」 편에서 “백성들이 말하기를 ‘부유해지고자 하는가? 그러면 수치심을 견디고[忍恥], 목숨을 다 바쳐 추구하며, 친구도 버리고, 의로움을 등져야 한다’”⁴¹⁾라고 하여 수치심을 견뎌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순자는 이익 추구를 위해 수치심을 감내하는 인간을 ‘비루한 인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간이 도덕적 수치심을 느낄 때 의를 실천하려는 용기를 갖게 된다. 『순자』 「영욕」 편에서는 “의가 있는 곳에서 권세에 기울어지지 않고, 그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한 나라를 그에게 준다 하더라도 돌아보지 않고, 죽음을 중시 여기고 의를 지키며 굽히지 않는 것, 이것이 사군자의 용기이다”⁴²⁾라고 하였다. 인간은 도덕적 수치심에 의해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 수치심은 인간 스스로가 배움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도덕적 실천의 길로 향해 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기배려적인 감정이다.

3. 결론

이 글에서는 수치심을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감정으로 그리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감정으로 말하고 있으면서도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감정으로 규정으로 하고 있는 순자의 수치심을 주제로 살펴보았다. 순자철학에서의 수치심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수치심은 인간의 기본감정 중 싫어함과 관련되어 있다. 즉, 인간은 부정적 수치심인 모욕을 싫어하는 경향성을 타고난다. 즉, 수치심은 인간의 기본감정 중 싫어함이라는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해서 형성된 감정이다. 인

41) 『순자』 「대략」. “欲富乎? 忍恥矣, 傾絕矣, 絕故舊矣, 與義分背矣.”

42) 『순자』 「영욕」. “義之所在, 不傾於權, 不顧其利, 舉國而與之不爲改視, 重死而持義不撓, 是士君子之勇也.”

간이 부정적 수치심을 싫어하는 것은 원초적인 자기의식의 훼손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수치심은 인간이 후천적인 배움을 통해 쌓게 되는 덕과 행위로부터 비롯된다. 순자의 철학에서 수치심은 맹자의 주장처럼 선천적으로 부여되는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덕과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후천적 경험의 산물이다.

셋째, 권세에 의한 수치심[勢辱]은 비도덕적 행위나 법을 위반하려는 행위를 제어한다. 타고난 성향에 충실한 인간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을 해치는 행위도 서슴없이 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타고난 성향만을 따라 행위 하는 인간은 타인과 다투게 되어 위태롭고 치욕을 당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인간은 손해를 싫어하는 선천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도덕규범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치욕스런 형벌을 줌으로써 사회적 규제의 기제로 사용하고자 한다. 순자는 이처럼 형벌을 받음으로써 타임들에게 비취지는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됨으로써 느끼는 수치심을 권세에 의한 수치심이라 정의한다. 권세에 의한 수치심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수동적인 것이며, 부정적인 감정이다. 순자는 이러한 권세에 의한 수치심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게 하고자 한다. 하지만 권세에 의한 수치심은 인간의 자발적 행위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인간은 단지 형벌에 의한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 법이나 도덕규범을 준수할 뿐이다.

넷째, 염치(廉恥)는 능동적 수치심으로서 타고난 기본 욕구를 사회적 맥락에 맞게 조율한다. 인간은 예를 배움으로써 타고난 기본성향을 사회적 맥락에 맞게 조율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은 예를 배움으로써 수동적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 능동적 수치심을 형성하게 된다. 이 때 인간의 내면에는 예의에 대한 자의식이 형성되고 이때 인간은 능동적 수치심인 염치가 형성되게 된다. 예에 맞지 않은 행동에 대한 수치심이 바로 염치(廉恥)이다. 염치란 능동적 수치심으로서 인간이 예를 습득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인간은 염치를 통해 타고난 욕구를 사회적 맥락에 맞게 조율하고 사양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의에 의한 수치심[義辱]은 인간으로 하여금 배움의 길로 나아가

게 하고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올바른을 실천하며 사회적 분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 의에 의한 수치심은 자신의 행위가 의에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감정이다. 의에 의한 수치심은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치심으로서 인간이 도덕실천을 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감정으로 작용한다. 인간은 이러한 의에 의한 수치심에 의해서 도덕적 실천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의에 의한 수치심은 인간이 공동체의 질서와 번영을 위한 도덕적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로 작용하게 된다.

요약하면, 순자의 철학에서 보이는 수치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치심은 자기 배려의 감정이다. 인간은 수치심을 통해 더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 배움을 길로 나아가게 된다. 둘째, 수치심은 자기 반성적 감정이다. 수치심은 자신의 행동이 예의에 맞지 않는다는 반성과 인지에서부터 발생하는 감정이다. 수치심은 도덕적 인지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감정이다. 셋째, 수치심은 사회적 감정이다. 즉, 수치심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능을 통해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뤄갈 수 있게 하는 감정이다.

참고문헌

- 王先謙 撰. 『荀子集解』. 中華書局. 2010.
- 朱熹 撰. 『四書章句集注』. 中華書局. 2012.
- 김학주 옮김. 『순자』. 을유문화사. 2001.
- 이운구 옮김. 『순자』 1-2. 한길사. 2002.
- John. Knoblock., *Xunzi: A Translation and Studay of the Complete Works vol. 1-3*.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 Eric L. Hutton., *Xunzi: The Complete Tex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게오르그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옮김. 새물결. 2005.
- 딜런 에번스. 『감정』. 임건태 옮김. 이소출판사. 2002.
- 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 막스 셸러.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조정옥 옮김. 아카넷. 2014.
- 사르트르. 『존재와 무』. 정소성 옮김. 동서문화사. 1994.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창우·김재홍·강상진 옮김. 이제이북스. 2006.
- 임홍빈. 『수치심과 죄책감』. 바다출판사. 2013.
- 조정옥. 『감정과 에로스의 철학-막스 셸러의 철학』. 철학과현실사. 1999.
- 퀵로이순. 『이장희 옮김. 『맨얼굴의 맹자』. 동과서. 2017.
- Seok, Bongrae., *Embodied Moral Psychology and Confucian Philosophy*. Lexington Books. 2013.
- Prinz, Jesse J., *The Emotional Construction of Moral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Bernard, Williams., *Shame and Neces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 Kwong-Loi, Shun., *Mencius and Early Chinese Thought*.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 Philip, Johnson-Laird., *How We Reas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이 찬. 「맹목적 욕망과 자기인식의 결여: 부끄러움[恥]에 대한 철학적 인간학의 성찰」. 『범한철학』 제63집. 범한철학회. 2011.
- _____. 「수치심과 ‘용기’-유가의 전통에서 인간다운 삶의 의미에 관하여」. 『철학연구』 제51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5.
- 정용환. 「맹자의 도덕 감정론에서 부끄러움의 의미」. 『철학논총』 제66집. 2011.
- 任玉軍. 「荀子榮辱觀概要」. 『文史博覽』. 2008.
- 馬永慶. 「荀子的榮辱思想釋義」. 『哲學研究』. 2006.
- Antonio, Cua., “The Ethical Significance of Shame: Insights of Aristotle and Xunzi”. *Philosophy East and West Vol.53*. 2003.
- Bryan, Van Norden., “The Emotion on Shame and the Virtue of Righteousness in Mencius”. *Dao: A Journal of Comparative Philosophy Vol 2*. Springer. 2002,

Abstract

Shame as the driving force of the moral behavior -focused on the philosophy of *Xunzi*-

Jeong, Young S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moral function of the shame centered on the philosophy of *Xunzi*. In *Xunzi* philosophy, shame is passive emotion and active emotion. First, passive shame is related to feelings of dislike. This is called shame in terms of one's circumstances(勢辱). *Xunzi* uses passive shame to prevent the act from harming others by an excessive desire. Next, *Xunzi* argues that human beings can adjust their innate basic desires to the social context through active shame. By learning *li*(禮) and *yi*(義), humans have active shame. Sham associated with ritual(廉恥) adjusts the desire fulfillment to the social context. Shame associated with righteousness(義辱) acts as a courage to practice ritual to human beings. In *Xunzi* philosophy, shame acts as a driving force for human beings to move in the path of learning and moral practice. In other words, shame is the emotions of self-consideration and self-reflection.

【Key words】 *Xunzi*, Shame, Shame in terms of one's circumstances(勢辱), Shame associated with ritual(廉恥), Shame associated with righteousness(義辱)

논문접수일: 2019년 5월 13일, 심사완료일: 2019년 6월 11일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12일